1:1 채팅

2022.01.15. 21:37 조회 2.7만

무한매수법을 해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은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계적으로 매수매도를 한지 4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락장에도 잠을 잘 자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중

제가 유튜브라이브에서 제 코인투자기를 덤덤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시 잠을 못잤습니다.

저는 <mark>중간과정에서 코인 손실액이 무려 마이너스 4억이었습니다.</mark> 당시 4억이면 강남,압구정을 제외하고 왠만한 서울지역에서 갭끼고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개원대출이 4억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개원빚을 갚든, 지겨운 무주택인생에서 집을 사든 할수있는 돈을 코인으로 잃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2018년 당시 제가 코스트에버리징, 그리드매매법, 변동성돌파매매법이나 피보나치, 엘리엇파동 등등 차트공부를 한 것은

저에게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영영 잠을 잘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기나긴 수렁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싶었고 긴기간 발버둥 쳤습니다.

지나고나니 그냥 그때 그런걸 연구해서 지금의 무한매수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시의 저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코인차트를 보고, 한참을 거실에서 한숨을 짓다가 다시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이 과정을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돈도 문제이지만 와이프마저 잠을 못자게 하고싶지 않았습니다.

비트멕스라는 코인 마진거래소가 있습니다. 저는 건드려서는 안되는 마진거래도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메일로 청산당했다는 연락을 받을때마다, 복구하기 위해 더 고배율의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청산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코인에서 익절하고 빠져나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코인하는 3년동안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내리면 내리는데로 오르면 오르는데로 잠을 못잤습니다

무한매수법은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3년을 코인으로 큰돈을 잃어보고 ( 결국 수익으로 빠져나왔지만) 맘고생하다가 3배레버리지를 하는 마인드랑									
주식을 해본적도 없는 사람이 3배레버리지를 다루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분명 누군가는 무한매수법을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저처럼 별 신경 안쓰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 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금액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매수법 이후로 잠을 편하게 자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한테 해당되는 것이며									
무한매수법은 주식초보에게는 중간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과거의 저처럼 잠을 못자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느냐 못하느냐 또한 개인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큰 돈을 가지고, 빚을 크게 져서, 주식 을 이제 처음해보는 못합니다 못견딥니다.									
무한매수법을 시작하기전에									
주식이라는게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투자라는게 무엇인지 부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리스크없는 수익은 존재할 수 없으며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상상과 현실이 매우 다릅니다.									

지나간 차트를 보고, 나라면 저기서 매수했을텐데 -> 아니오 당신은 다시 돌아가도 매수 못합니다.

나라면 미리 현금을 조금 남겨놨다가 저점에 매수할텐데 -> 아니오 당신은 다시 돌아가도 현금을 못남겨놓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시 고딩이 된다면 하루 8시간씩 공부해서 서울대를 갈텐데...가 더 현실적입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요

주식에 더 겸손하시고

내가 큰 돈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변동성을 감당 못한다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챙피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금액이 적더라도 변동성을 감당할 만큼만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현재 자기의 그릇을 모르고 무턱대고 많은 돈을 끌어쓰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진정한고수가되세요천천히요

# 주식을 많이 안해보신 분들은, 무매종목으로 지수추종ETF를 추천드립니돠 368



1:1 채팅

무한매수법 책이나 또는 제가 그동안 적어온 방법론에는

무한매수법에 가능한 종목들을 나열했었고, 제가 실제 매수한 종목들을 보여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구독 중

####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은

제가 LABU 를 매수할때 저를 따라서 LABU 를 매수하던 분들이

소진후에 제가 LABU 를 영혼법이든 부분손절이든 대응할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 종목공개를 그만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LABU 는 예시일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40회 소진후 존버를 방법론으로 설명드린 적은 한번도 없었고, 책에 적었던 수익률 백테스트 기준은 40회 소진후 손절 기준입니다.

다만 손절을 많은 분들이 결정하기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영혼법이나 쿼터손절법, 전체영혼법 등등 여러가지 대응법 등을 알려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 하락장 이후로 3월에 다시 급등장이 왔을때, **다른 여러가지 대응법보다 존버가 낫더라** 라는 글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점 이후로 저말고도 여러가지 대응법 아이디어를 적으신 분들이, 존버가 낫다는 공격을 받고 더이상 글 적는 것을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 대응법을 공유하는 사람쪽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제일 나은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마다 주식을 해온 경험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어쩔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험의 차이는 도저히 글로 표현할 수 없고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4월 5월에 이렇게 최악의 하락장이 더 올줄은 예상못했습니다. 존버가 낫다 대응이 낫다 어느쪽이 나을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글은 존버가 낫다 아니다를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존버를 하시려면 지수추종 ETF 를 하셔야 합니다.

UPRO UDOW TQQQ 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장기상승을 담보할 수 없거나 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존버하면 decay 현상을 그대로 맞게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예상못했던 부분은, 아예 주식을 해본적도 없는 분이 무한매수법을 시작으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가끔씩 제가 받는 댓글 내용중에

" 우리 부모님이 평생 주식을 해본적이 없는데 , 라오어 당신 책을 읽고 주식을 시작했다가 물려서 손해만 커졌다. 책임져라" 고 하십니다

무한매수법은 철저히 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드가 어느정도 있고 시드를 순환할 수 있고, 계획된 매매를 지킬수 있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페에 모일줄 몰랐었고, 또 다양한 분들이 무한매수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몰랐던 여러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저도 깨닫게 되어서 정리드립니다.

# 주식경험이 많지않아 대응을 선택하기 힘든 분은 즉 소진후 대응을 하지못해 존버 가능성까지 염두하려면,

지수추종 ETF 로 무매를 시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존버가 아니라, 손절을 통한 대응을 직접 해보시고 나서... 다른 ETF 들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순서로 가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ETF 가 무슨 섹터나 무슨 회사를 담고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주식과정이 덜 힘드실 것입니다.

제가 전체영혼법이나 쿼터손절 글을 적고나서도 시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TQQQ 무한매수법을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정식으로 쿼터손절에 들어갔고,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나서야 쿼터손절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시 글로는 여러가지 의미를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정해져있는 방법론도 그럴진데, 투자에 대한 경험은 더더욱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부딪히고 느끼는 수 밖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주린이의 벽을 넘어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페이스메이커그이상도그이하도아닙니다

# 원금보다 많이 매수하면 더 수익이 커진다는 착각



카페에 반복된 질문이 나와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무매법에 1억을 할당했는데, 어차피 40회소진이 되는 일이 자주 안오니까 1.5억쯤 으로 잡고 매수하면 안되나요? "

이런 비슷한 질문입니다.

원금보다 50%를 더 매수하면 수익이 50%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장이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이 좋지 않은 사이클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옵니다. 백테스트상 40회 소진은 1종목당 1년에 1~2회정도 경험합니다. 이 말은 12개월중 4개월정도는 매도없이 40회

그렇다고 나머지 8개월이 모두 짧은 사이클인 것은 아닙니다. 35회 매도도 있고 5회 매도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 1. 40회소진후 -10% 이내라서 손절을 시행한 경우
- : 원금을 빡빡하게 잡지 않았다면, 다른 종목의 수익을 합쳐서, 손절을 했음에도 다시 원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스플릿 법이나 영혼법이 필요한 경우
- : 원금을 빡빡하게 잡지 않았다면 추가수익을 더 마음편하게 얻을수 있습니다

즉 원금을 원금그대로 기준잡는 것이, 위기상황에서 훨씬 수익이 늘어나며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평소에 원금보다 더 많이 매수하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추가수익을 얻을수 없으며, 특히 영혼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존버/손절 을 하게될 경우 수익이 결과적으로 더 줄

이번 LABU, FNGU 사이클을 통해 40회 소진이 실제로 온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운**좋게 늦게 무매법을 시작해서 이 2종목의 40회 소진을 피하신 분은, 뜻** 때 반드시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순간에 대응에 차이가 납니다

저는 8억을 무한매수법에 할당하고 매수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용가능한 금액은 10억이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한매수법으로 벌어온 자금과 저의 노동소득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억을 무매법으로 할당하지 않고 더 적은 금액을 할당해서 하는 이유는 ( 10억이 아니라 12억처럼 매수할 수도 있었겠죠 )

- 1. 영혼법과 스플릿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 2. 장투계좌에서 POOL의 마이너스를 허용하기 위해서
- 3. 가끔 큰 하락장에서 무매 1종목을 잠시 추가해서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주식투자는 상승장보다,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상승장에서 20% 더 버는 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하락장에서 대응이 힘들어,

그럼에도 원금보다 많이 매수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들을 각오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지만,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1:1 채팅

2021.07.31. 08:44 조회 4.8만

얼마전에 무한매수법 TLP 를 응용하는 방법을 적은 것 처럼

이번 글은 무한매수법  $V1 \sim V2.1$  를 응용하는 방법과 너무 과하게 응용해서 추천드리지 않는 수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중

무한매수법의 기본 컨셉은

분할매수 + 매도점 + 변동성 +10분투자 임을 기억해주세요^^

특히 분할매수 를 습관화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더 추가하겠습니다.) ( 댓글로 아이디어 질문주시면 본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기술주 위주로 무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1. 40분할 10프로 매도에 대해서

35분할이나 45분할은 안되는 것인가? 9프로나 11프로 매도는 나쁜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준을 잡은 이유는, 보통 주린이분들이 주식하시는 기준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익숙해지시면 수치를 조금 바 꾸셔도 됩니다.

대신 어느쪽이 더 위험한 방향인지를 알고 바꾸셔야 합니다

10분할이 수익률이 더 높을수도 있으나, 더 잦은 손절을 해야합니다

다만 비추천하는 변형들이 있습니다.

- (1) 35분할로 하기로 해놓고, 마지막에 35회 소진후 추가매수를 더 하면서 회차를 바꾸는 것 -> 처음의 계획을 마지막에 다시 변경 할거면, 애초에 계획을 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 (2) 9% 매도를 하기로 해놓고 실시간으로 차트를 계속 확인하는 것 -> 9% 매도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매도 걸고 주무세요^^;

## 2. 저는 V2.1 는 너무 복잡해서 V1 만 하고 싶어요

V2.1 를 조금더 안정적으로 짠 것이나 조금더 복잡해진 것도 맞습니다. simple 을 원하시면 V1 로 먼저 익히시고 V2.1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대신 기술주 위주를 추천합니다. 특히 첫 경험을 위한 종목은 TQQQ 를 추천합니다

	-					MTIM				
			T			성장성				
			상			중			하	
			SOXL					LABU		
	상		BULZ	FNGU	RETL		NAIL		DPST	
		TECL							BNKU	
		TQQQ		WEBL		TNA	HIBL	DFEN		
변동성	중			WANT			A-	TPOR		
					FAS	MIDU	DRN	PILL		
		UPRO					DUSL			
	하	UDOW							UTSL	
				CURE						

## 3. 하락장에 더 매수하고 싶어요

하루에 1회치 매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보통 주린이 분들의 기준없이 매수를 마음대로 바꾸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RSI 가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에 추가매수를 하는 것이 잘못된 논리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시기에 1회치가 아니라, 1.5회치나 2회치 매수 정도까지는 리즈너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RSI 가 25라고 해도 그 다음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만 3가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1) 하락장에 5회치 10회치씩 매수하는 행위
- (2) 하락장에 무서워서 매수를 아예 안하는 행위
- (3) RSI 가 높은 상태에서, 하루에 많이 급락했다고 1회치 추가매수하는 행위

## 4. LOC 매수대신, 장중매수는?

loc매수가 저점매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적었었습니다. 장중매수로 하셔도 됩니다. 거래량이 충분하면 프리장매수 하셔도 됩니다



#### LOC 매수가 장중매수보다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매수법 과 VR 을 모두 LOC 매수를 기본으로 하다보니 주식경험이 많지 ... cafe.naver.com

#### 5. 종목갯수는 어떻게 정할까요?

V1 과 V2.1 의 결정적인 차이는

V1 은 다종목의 캐시플로우를 이용해서 영혼법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극복하자는 컨셉이고

V2 는 RSI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40회소진 자체를 줄이자는 컨셉입니다.

( 현재는 기술주 위주의 무매를 추천합니다 )

## 6. 더 안전한 방식으로 하고싶어요

V2.1보다도 더 안전하게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음과같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 (1) 40분할이 아니라 50분할로 한다.
- 대신 처음부터 그렇게 분할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40분할 소진 근처가 되어서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 (2) RSI 가이드라인보다 더 낮게 시작한다.
- (3) 매수나 매도를 처음부터 V2.1의 후반전으로만 한다
- (4) 1회차 매수를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3분할로 나눠서 LOC큰수매수에 1/3 매수, LOC평단매수에 2/3 매수한다 ( 4분할 5분할 등등 도 가능 )

https://cafe.naver.com/infinitebuying/36050



# 7. 빠른무한매수법 을 해보고 싶어요 (IB님 응용법)

초보인 경우는 최소 6개월은 무매 FM대로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응용법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무매법은 단순히 첫날에 많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규칙없이 그냥 첫날에 많이 매수하고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며, IB님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 큰 인내심이 필요한 영역이고, 실제 해보시면 멘탈적으로도 장기매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성 공한다면 수익을 더 많이 얻을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식은 수익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공부해나가시길 바랍니다.